

지역 소식

북 아시아 지역
지역 계획 2016

지역 회장단 메시지 - 지역 계획 2016 시리즈

영적 자립- 나 자신에게서 찾는다

북 아시아 지역 회장단 제1보좌 가즈히코 야마시타 장로가 지역 계획 목표 중 하나인 자립에 대하여 말씀한다.

가즈히코
야마시타 장로
북 아시아 지역
회장단 제1보좌



질문. 지역 계획 목표 가운데 “자립”을 포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 야마시타 장로:

현 대의 선지자, 특별히 제일회장단이 이것을 강하게 권고하고 계신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는 물질적인 자립뿐만 아니라, 진정한 개종 및 영적 자립에서 오는 자립까지 포함합니다. 저는 복지 원리에도 우리 자신의 영적 자립에 대한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적 자립 = 스스로 답을 찾는 능력

저 자신을 돌이켜 볼 때, 사실상 저는 개종하고 나서 곧바로 영적으로 자립한 것 같지 않습니다. 좀 더 부연하면, 처음에 저는 다른 사람들의 간증에 의존했습니다. 어느 정도 신앙이 있었지만, 그리 강하지는 않았습니다. 가령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다고 믿었지만, 갖가지 도전 앞에 제 신앙은 여전히 흔들렸습니다. 저는 완전히 믿지 못한 채로 있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 사람들이 그와 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지요.

하지만 사실 우리는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을 때에 비로소 진정으로 자립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경전을 공부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행사하며 기도를 드리는 동안 개인적인 영적 체험을 통하여 답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정기적으로 실천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자립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해답을 찾을 능력이 없거나 해답을 찾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자립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어려운 고민이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 털어놓고 도움을 요청하는 간단한 과정을 거쳐 해결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은 분명 영적인 자립을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하기에 앞서, 먼저 스스로 그 문제에 대해 생각하며, 경전을 펴 보고, 그 문제에 관해 기도를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와 같은 일을 얼마나 제대로 할 수 있느냐가 여러분의 영적 성숙함의 수준을 보여 주는 척도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답을 구하는 것이 시작점이다

청소년이 이해하기 가장 쉬운 방법은 니파이와 조셉 스미스의 경우입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기억하는 첫 번째 성구 익히기 구절은 니파이전서 3장 7절입니다. “내가 가서 주께서 명하신 일들을 행하겠나이다. 이는 주께서 사람의 자녀들이 그가 명하시는 것을 이룰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길을 예비하실 것이 아니고는 아무 명령도 주지 아니하심을 내가 앎이니이다.” 저는 니파이가 그의 형 레이맨, 레뮤엘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를 청소년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신의 간증을 얻은 니파이는 스스로 행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자신의 간증을 얻고 나서 진정한 영적 자립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공식입니다.

조셉 스미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실제로 어린 소년 조셉의 행동이 이와 같은 원리로부터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먼저 자신의 간증을 구했습니다.

반면에 레이맨과 레뮤엘은 동생 니파이와 아버지에게 불평만 하였을 뿐 주님에게서 답을 구하려 하지 않았습니다.¹ 저는 이것이 다른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중요하고도 정말로 **단순한** 이 원리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가 진정 영적으로

지역 목적

개인/가족

복음 안에서 기쁨을 찾는다

단위 조직

1. 자라나는 세대: 우리는 자라나는 세대를 강화한다.
2. 실질 성장: 우리는 회원의 개종을 심화한다.
3. 자립: 우리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가정에서 영적 및 현세적 자립을 강화한다.

자립을 하려면 현세에서나 다음 생에서나 이와 같이 스스로 답을 구하는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며, 여전히 계속하여 창조하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가 완전히 낙관적인 태도를 갖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곧바로 실망을 하고 시종일관 스스로를 쓸모없다고 여긴다면, 우리는 선교사로서 성공을 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 안에는 그와 같은

생각을 떨쳐 버릴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이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스스로 간증을 갖게 될 때 진정한 영적 자립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간증은 여기저기 분리된 단편적인 경험에서뿐만 아니라, 영생을 향한 인생 여정 전체에 걸쳐 축적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나에게 확고한 간증이 없다는 생각이 들 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답변. 야마시타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의 홀런드 장로님은 최근 연차 대회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이나 의심, 고난의 시기가 오면, 먼저 여러분에게 이미 있는 신앙을 붙드십시오. ...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굳게 붙들고 더 많은 지식이 주어질 때까지 굳건하게 견디십시오.”²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저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조셉 스미스는 참으로 우리의 선지자입니다. 물론 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책임입니다. 이와 같은 기본적 믿음이 참되다고 생각하면 그 신앙을 굳게 붙드십시오. 우리에게 확신이 없고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청소년뿐만 아니라, 어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믿는 뭔가가 있다면, 그것을 확고하게 붙잡으십시오. 주변의 회원들과 부모님이 청소년을 복돋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종을 했을 때 저는 선교사들에게서 다음과 같이 간증을 얻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1. 기도하며 경전을 공부한다. 2.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한다. 3. 배운 바를 실천한다. 우흐트도르프

회장님 역시 간증을 얻는 법을

피력하였습니다. 1. 소망을 갖는다.

2. 경전을 연구한다. 3. 주님의

뜻을 실행한다. 4. 계명을 지킨다. 5. 상고하고 금식한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 않습니까? 스스로 계시를 구하고, 인식할 수 있도록 준비하며, 이와 같은 단순한 것들을 계속 반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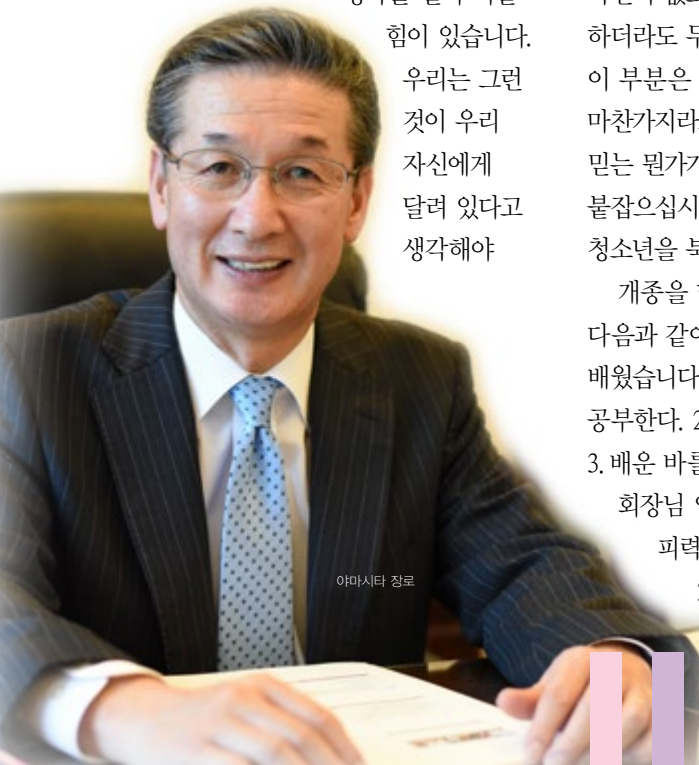
주님의 방법으로 이끈다

질문. 청소년들이 스스로 나서서 간증을 구하게 하려면 어떻게 그들을 지도해야 합니까?

답변. 야마시타 장로: 제가 대학에서 오랫동안 가르친 경험에 비추어 보면, 젊은이들이 생각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어쩌면 자신의 주장을 표현할 수 있는 환경에서 자라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의 교육 현실에서는 스스로 생각하는 바를 표현하도록 훈련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어 가면서 젊은 사람들을 비판하는 경향이 있지만, 저는 그것이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젊은이들은 그들 안에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저는 젊은이들이 지닌 그 힘을 밖으로 끌어내는 것이 먼저 세상을 살아온 사람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성찬식 모임에서 더 많은 연사들이 꿈이나 희망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날카로운 꾸짖음에 집중하기보다는 부드러운 사랑으로 회원들을 보살피는 것을 더 강조해야 합니다. 그와 같은 태도가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여러 가지 지침과 표준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지침과 표준을 밀어붙여 사람들이 죄책감을



야마시타 장로





자립이란 다른 사람이 잡아 주는 물고기를 받는게 아니라 물고기를 직접 잡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자립 또한 다른 사람의 간중에 의존하기보다는 스스로 경전을 공부하고 기도함으로써 응답을 받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느끼도록 하는 것은 주님의 지도 방법이 아닙니다. 가령 선도평의회에서 처음부터 미리 결론을 내려 두고서 시작한다면 그 사람을 진정으로 인도하여 구해 낼 수 없습니다.

저는 교사들이 교리와 성약 50편 22절의 “둘 다 교화되[는]” 원리를 더 잘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가르치는 일은 단지 한 사람이 서서 처음부터 끝까지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생각을 밝히며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대학에서 가르칠 때 다루곤 했던 “코칭 철학”은 운동 선수들을 가르치는 코치들의 철학이나 아이디어인데, 미국에서 가장 큰 지지를 받는 이 방법 역시 군대처럼 명령하는 방식입니다. 사람들이 이 방법을 선호하는 이유는 즉각적인 효과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와 대조적으로 주님의 방법은 대화를 나누는 것이며 그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에게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오래 기다려야 하며 이따금 답을 받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는 그만큼 희망을 갖고 참으며 기다려야 합니다. 마침내 운동 선수는 스스로 생각하는 것을 배우며 독립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신뢰하며, 기다리십니다. 복음에서 필요한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저는 성역(주님의 양을 먹이는 것)이란 바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운동 선수는 명령식으로 할 때 좀처럼 독립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청소년들이 진정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제대로 지도했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성가시다며 흔히 우리는 쉬운 방식(명령 스타일)을 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처럼, 가르치는 일은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자립하도록 양육하려면 주님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야 합니다. 특히 복음을 아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한가운데 두는 것에 관하여 서로 가르치며 배워야 합니다.

자립으로 이끌어 주는 행동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니파이에게는 이미 간증이 있었기에, 다시 말해서, 그는 이미 영적으로 자립하였기에 행동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독립이나 행동, 그중 어떤 것이 먼저 오는지 생각해 볼 때, 저는 먼저 오는 것은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바꿔 말하면, 행동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베드나 장로님은 교회 교육 기구 지도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구약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나아가던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궤를 가지고서 요단강을 건너려

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먼저 강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사람들이 강을 건널 수 있도록 물이 말라서 길이 준비된 것은 그들이 물에 들어선 다음이었습니다.³

복음을 완전히 이해하고 나서 적용해 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나 장로님은 앞으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이미 충분히 알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은 행동과 힘의 원천입니다.

첫걸음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긍정적이며 낙관적인 태도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기다리기만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저 기다린다고 해서 이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 비전의 핵심어들은 동사입니다. 행동을 취하며 실천을 하는 것은 자립을 향한 첫걸음입니다. 지역 회장단은 지역 계획이 우리를 **강화**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자립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함께 갑시다

제가 젊었을 때부터 복음대로 살고자 할 때, 스스로를 위해 설정한 기본 신조는 “용기를 갖자”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자” “앞으로 나아가자”였습니다. 저는 우리에게 용기가 있다면 모든 게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저는 부모나 어른들이 “함께 가자”고 말하며 청소년들에게 **권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단강을 건넌 사람들은 홀로 걸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함께 걸어



여러분은 이미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나왔습니다. “성도들이 두려울 것 없다”라고 노래한 우리의 개척자 선조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낙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여전히 당신을 바라보고 신뢰하며 끝까지 긍정적으로 걸으라고 하십니다. 저는 헝클리 회장님이나 몬슨 회장님과 같은 낙관주의자의 긍정적 모범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소년들이 용기를 갖도록 돕는 좋은 방법을 찾는 것이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하는 한 가지 방안으로 “함께 가자”는 이 개념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연차 대회 말씀을 듣습니다. 거기서 우리 지도자들은 언제나 상의하달식으로 우리를 나무라기보다는 “그 일을 함께 합시다”라고 말하며 따뜻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권유**합니다. 주님도 그와 같습니다. “와서 나를 따르라”라는 것은 명령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초대입니다.

낙관적인 태도로 자녀들을 가르친다

결혼한 부부가 지속적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자녀들의 영적 자립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처음에는 교회에 참석하는 이유를 모른 채 그저 부모를 따라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자녀들에게 풍성한 **사랑**을 보여 준다면, 마침내 자녀들의 마음은 깨우침을 받아서 부모에게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않을 때, 자녀들이 뒤에서 보고 배우는 것은 우리 교회의 가르침과 완전히 반대가 될 것입니다.

그와 비슷하게, 부모가 경전을 읽을 때 자녀들에게 어떤 종류의 얼굴 표정이나 태도, 행동을 보이는지 고려하십시오. ‘해야 하는 일이니까 하는 것뿐이지, 경전 공부하는 힘든 일이야’ 혹시 우리의 태도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교회에 가야 하니까 가는 것뿐이지 나는 피곤해.’ 혹시 일요일 교회에 갈 때 우리는 그러한 태도입니까? 그렇다면 이와 같은 태도를 보는 자녀들이 배우는 것은 정확하게 무엇일지 의문이 듭니다.

아쉽게도 저의 부모님은 교회 회원이 아니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대신 우리 교회 지도자들에게서 그와 같이 긍정적인 태도와 낙관적인 행동을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말보다는 모범으로 더 많이 배웁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자립의 소망

아울러 저는 청소년과 성인 모두에게 소망이라는 개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성인, 특히 부모들은 청소년을 향하여 희망을 품습니다. 저는 세상 풍조에 휘둘리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굳게 서겠다는 높은 희망과 소망으로 걷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아주 사소한 문제로 다른 사람들을 거둬 나무라며, 역경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주님의 방법과 정반대입니다. 바로 그 부분에서 주님의 속죄가 필요합니다. 주님을 우리의 중심에 둔다면, 우리는 주님의 속죄를 통해서 용서를 받고, 깨끗해지며, 위안을 받고, **강화**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어 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날마다 속죄의 권능을 느낍니다. 청소년들도 그것을 구하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부모들은 포기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일부가 회원인 가족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자립은 사람들 모두에게 적용이 됩니다.

높이 뛰려면 어떻게 합니까? 맞습니다. 무릎을 굽힙니다. 우리 몸을 작게 만드는 만큼 더 높이 뛸 수 있습니다. 그냥 똑바로 선 채로 높이 뛸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뭔가에 짓눌리거나 낙담에 빠질 때, 그와 같은 난관을 최선의 높이뛰기 준비로 받아들이십시오.

우리는 소망을 잃은 채로 우리 자신이 자꾸만 작아지도록 놓아두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상 위기는 힘을 축적하는 기회입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그와 같은 태도를 견지한다면 진정한 영적 자립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주

1. 니파이전서 15:8~9 참조.
2. 제프리 알 홀런드, “내가 믿나이다”, 리아호나, 2013년 5월호, 93쪽 참조.
3. 여호수아 3:8~4:18 참조, 또한 동영상 링크(영어) <http://lds.org/go/43S> 참조.

우리 상호부조회 회장단이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서울 동 스테이크
상호부조회 회장단

자립 지도자 지도서에는 자립 사업을 버스와 버스 운전기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립 계획은 면허증을 가진 운전사가 필요한 버스와 같습니다. 자립 지원 서비스의 직원이 그 버스를 만듭니다. 자립 계획은 자립 자원 센터를 통해 전달되며, 스테이크 자립 위원회가 관리를 맡습니다. 스테이크 자립 전문가와 그룹 진행자들은 구성원들이 버스에 오르는 것을 돕습니다. 하지만 구성원들은 자발적으로 버스에 올라야 합니다. 스테이크 회장과 감독이 버스 운전사입니다.”

스테이크 회장과 감독이 버스를 운전하고, 자립 전문가와 진행자가 회원들을 버스에 오르도록 돕는 일을 할 때, 우리 상호부조회 회장단은 신권 지도자들을 도와서 어머니와 성인이 된 딸들, 더 나아가 그들의 가족이 ‘자립’이라는 버스에 오르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조언자가 되어주고, 함께 손을 잡고



동 스테이크 자립 위원회 모임

자립으로 향하는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신권을 중심으로 이 자립 사업이 진행된다면, 세상의 그 어떤 전문 조직보다 훌륭한 성취를 이뤄낼 것이라고 믿습니다. 해롤드 비 리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 했습니다. ‘아무 조직도 필요하지 않노라. 나는 이미 지상에서 가장 위대한 조직을 네게 주었으니, 신권 조직보다 더 위대한 조직은 없노라. 네가 할 일은 오직 신권 조직이 움직이게 하는 것이니라.’” ■

자립에 관한 교리

1. 현세적인 것과 영적인 것은 하나입니다.
(교리와 성약 29:34; 앨마서 37:38~43)
2.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립하라고 명하시며, 우리를 도울 모든 권능을 갖고 계십니다.
(교리와 성약 104:15~16; 100:1; 니파이전서 9:6; 니파이후서 27:21, 23; 모사이야서 4:9)
3. 자립은 승영의 원리입니다.
(교리와 성약 132:20)

자립에 관한 용어 익히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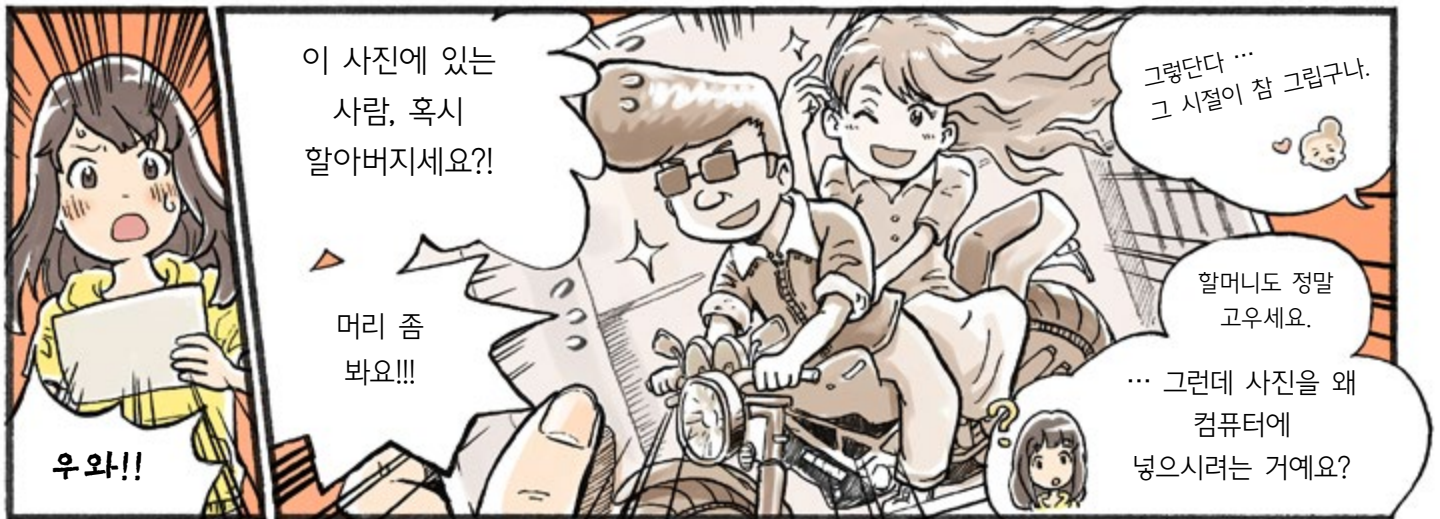
- 자립의 정의:
“자신과 가족을 위해 영적 및 현세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마련하는 능력과 각오, 노력들이다.”(지침서 제2권: 교회 관리[2010], 6.1.1)
- 스테이크 자립위원회:
스테이크 회장단 중 한 명(의장), 자립 담당 고등평의원, 스테이크 상호부조회 회장단 중 한 명, 감독 복지 평의회 의장 및 스테이크 자립 전문가로 구성된다. 스테이크 청남 청년 회장단의 일원, 그 외의 스테이크 전문가들, 전임 장년 선교사 및 교회 봉사 선교사들이 경우에 따라 포함될 수 있다.

단풍잎 가족



- 에피소드 4 -

“힘써 노력한다”



중리 와드 영상제 —개인 및 가족의 목표를 점검하다

북 아시아 지역 회장단에게서 지역 계획을 전달받은 지 반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다. 중리 와드 감독단은 와드 회원들이 지역 계획을 계속 실천하도록 어떻게 도울지 고민했다.



영상의 한 장면



영상을 시청하는 중리 와드 회원들

지난 6월 2일, 대구 스테이크 중리 와드에서 '북 아시아 지역 계획 2016 가족 영상제'가 열렸다. 이 모임은, 중리 와드 회원들의 참여로 사전에 제작된 영상을 함께 모여 시청하는 행사였다. 회원들은 영상을 통해 지역 계획과 관련된 자신의 목표를 소개하고 간증도 전했다.

이날 상영된 영상은 20분 정도의 길이로 중리 와드 활동 회원들 모두 영상에 출연했으며, 개인, 가족 및 정원회 단위로 세운 목표가 소개되었다. 전문가들이 제작한 세련된 영상은 아니었지만, 활동 회원 모두가 촬영에 참여하며 자신을 점검하고 목표와 간증을 기록으로 남겼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시도였다. 중리 와드 회원인 이윤순 자매는, "개인적인 목표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함으로써 좀 더 열심히 실천해야겠다고 결심할

수 있었습니다."고 전했다.

중리 와드 회원들은 촬영에 임하며 지역 계획과 관련하여 연초에 세웠던 목표를 점검했다. 가족으로서 목표를 세우지 못했던 회원들은 남은 반년 동안 실천할 가족의 목표를 세우기도 했다.

중리 와드 선교 책임자인 김남주 형제는, "가족이 함께 실천할 목표를 정하면서, 지역 계획에 대한 목표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다시 살기를 원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목표를 세운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영상제를 통해 느꼈습니다."라고 전했다.

이날 모임은 구도자 및 저활동 회원에게도 지역 계획에 대해 전하고, 그들도 참여하도록 권유하는 시간이 되었다. 영상을 시청하기

목표를 세울 때 얻는 결과



만일 우리가 생활에서 목표를 세우지 않고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삶의 기술들을

숙달하는 방법을 익히지 않을 경우, 노년에 이르게 되었을 때, 과거를 돌이켜 보면서 충만한 잠재력 가운데 작은 부분만 달성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을 저는 철저하게 확신합니다. 우리가 목표를 세우는 원리에 숙달하게 되면, 이생에서 얻는 결과에 커다란 차이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엠 러셀 벨라드, 솔트레이크 지역 청소년들에게 전한 말씀, 1981년 10월 18일,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146쪽 참조.

전 참석자들이 모두 함께하는 가벼운 우정 증진 활동이 진행되었다. 이는 팀 별로 단어 게임을 통해 지역 계획의 각 비전어를 맞춰 가는 활동으로, 지역 계획을 더 쉽게 익히고 외우는 데 도움이 되었다.

참석자들은 영상을 함께 시청하며, 자신의 목표를 성취하겠다는 결심을 굳히고, 다른 이들의 목표를 보며 배울 점도 찾았다. 다른 이의 목표에 대해 공감하며 서로 격려해 주었다.

영상제 모임을 마치면서 김일주 감독은 이렇게 말씀했다. "북 아시아 지역 회장단이 준 지역 계획의 의도에 따라 우리의 목표와 결심이 잘 실천되고 있는지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영상을 다시 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채워 나가면서, 다 함께 자신들의 목표를 성취해 나가기 바랍니다." ■

소통과 공감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한 국 홍보
위원회의
새로운
위원장으로
영동 스테이크
송파 와드의
김도균 형제가

부름받았다.

부름이 왔을 때의 소감을 그는 이렇게 말한다. “저의 부족한 부분과 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니파이에게 주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내가 가서 주께서 명하신 일들을 행하겠나이다. … 그들을 위해 길을 예비하실 것이 아니고는 아무 명령도 주지 아니하심을 내가 앎이니, …(니파이전서 3:7).’ 기업과 학교, 스포츠 현장에서 보낸 25년의 세월이 이 부름을 위한 준비였던 것 같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생각하기보다는 잘할 수 있는 분야를 활용하여 충실히 부름을 수행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김도균 형제는 기업, 학교, 스포츠 현장에서 일해 왔으며, 현재 경희대학교 체육대학 교수이자 부학장 겸 체육부장을 역임하고 있다.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자문위원인 데다, 2015년 대통령 근정포장을 수상하는 등 사회적 명성도 높다.

그는 교회를 홍보하는 목적과 홍보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교회의 구원 사업은 교회 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며, 사회적 기여와 공공 부문에까지 그 역할과 활동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홍보의 목적은 교회의 존재 목적과 활동을 널리 공유하고, 교회와 외부가 소통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미디어 생태계의 대표적인 키워드는 ‘소통과 공감’에 대한 욕구의 증가입니다. 교회에 대한 정보를 단순히 혹은 일방적으로 알리는 것보다는, 교회 행사를 통해, 그리고 스토리텔링, 즉 공감이 될만한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세상과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디어와 호의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교회와 복음 메시지를 잘 전달한다면, 우리는 세상에 훌륭한 모범이 되며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김도균 형제는 겸손하게 회원들의 도움을 요청한다.

“현대의 시대는 개인의 능력보다 협력과 융합이 중요합니다. 저는 연결자로서 회원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세상에 알릴 좋은 소식이나 아이디어 그리고 교회와 관련된 좋은 기사가 있으면 언제든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김도균 형제는 사촌 형의 권유로 교회를 찾아 1981년 성남 와드에서 침례를 받았다. 대학생 시절 종교 교육원 학생회에서 만난 김지숙 자매와 결혼하여, 슬하에 2남 2녀를 두고 있다. ■

새로 부름받은 홍보위원회 부부 선교사

한 국 홍보위원회의 새로운 부부 선교사로 스티븐 로빈슨(Steven Robinson) 장로와 그의 아내 앤 로빈슨(Ann Robinson) 자매가 부름받았다. 이들은 2016년 6월부터 18개월 동안 한국 서비스 센터 홍보 선교사 사무실에서 근무한다.

“한국은 제 두 번째 고향입니다. 홍보위원회 선교사로서 한국에 돌아올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이 부름은 주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주신 것입니다.” 로빈슨 장로와 한국의 인연은 1966년부터 시작된다. 그는 전임



로빈슨 장로 부부

선교사로서 1966년부터 1968년까지 서울, 부산에서 봉사했다. 배영천 형제, 정대판 형제 등 한국 초기 회원들과

우리는 가족 역사를 사랑합니다

<http://lds.org/go/41Q>

주님은 성전 건축과 성전 의식의 수행을 이 마지막 경륜의 시대의 큰 일로서 남겨 두셨다. 최근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는, 최근 개종자가 성전에 처음 방문하려고 할 때, 훌륭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죽은 자를 위한 대리] 침례를 받도록 권장한다.¹

성전 및 가족 역사 사업과 관련, 지역 회장단은 최근 개종자는 3개월 이내에 성전에 가서 대리 침례 의식을 받도록 권유했다. 또한 청소년과 가족이 특별히 참여하도록 강조했다. 아울러 북 아시아 지역 가족 역사 사업 캠페인을 통해 가족을 강화하고 기쁨을 찾으라고 권유했다. 지역 회장단의 이 특별한 초대는 찾기, 가져가기, 가르치기의 순서로 진행된다.

찾기

자료의 보존 및 기술의 발달로, 가족 역사 사업을 위한 다양한 자료가 마련되어 있다. 호적 및 제적 등본, 족보를 통해 얻게 된 정보 또는 살아 계신 가족, 친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찾게 된 정보,

이야기, 사진을 나의 가족 책자나 FamilySearch.org에 입력한다.

가져가기

이제 가정에서 성전 가족 의식 카드를 인쇄할 수 있으며, 성전 방문 시 원하는 의식도 선택할 수 있다. 본인이 직접 성전에 의식 카드를 가져가거나, 가족, 와드 또는 스테이크의 회원들과 공유해 제출한다. 가능하다면, 토요일 오후 성전 가족 침례 우선 시간에 돌아가신 조상을 위해 가족이 함께 성전 대리 의식에 참여한다.

가르치기

조상을 찾고, 성전에서 의식을 한 자신의 경험을 가족과 친구, 새로운 개종자와 함께 나누고 가르친다. 또한 북 아시아 지역 가족 역사 캠페인 페이스북 그룹에 자신의 경험과 느낌을 사진과 글로 올린다.(페이스북 검색창에 “우리는

우리는 가족 역사를 사랑합니다

가족 역사를 통해 여러분의 가족을 강화하고 기쁨을 찾으십시오.

찾기

- 족보, 호적 및 제적 또는 나의 가족 책자를 이용하여 조상들을 찾습니다.
- 조상들의 성전 의식을 예약합니다.
- 가족 의식 카드를 인쇄합니다.

가져가기

권유합니다. 이 목표들은 성전 및 가족 역사 사업을 통해 성취될 수 있습니다.

가르치기

- 여러분의 가족에게 가르치고, 새로운 개종자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와 같이 하도록 가르칩니다.
- 여러분의 경험과 사진을 소셜미디어에서 공유합니다.

가족 역사를 사랑합니다” 입력)

가족 역사 사업을 할 때 받는 축복에 대해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는 이렇게 말했다. “... 대적이 미치는 강한 영향력으로부터 보호받게 될 것임을 약속합니다. 이 성스러운 사업에 참여하고 사랑한다면 청소년시기 뿐 아니라 평생토록 보호될 것입니다.”² ■

주

1. 후기의 위대한 성전 사업(2016), 1쪽.
2.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자녀들의 마음은 돌이켜질 것입니다”, *리아호나*, 2011년 11월호, 25쪽

함께 봉사하던 기억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으며, 한인상 장로의 결혼식에 참석했던 일화를 나누기도 한다.

로빈슨 장로는 귀환한 이후에도 한국에서 생활했다. 그는 1969년부터 1971년까지 한국에서 주한 미군으로서 강원도와 진해 등에서 복무했다. 네바다주 출신인 로빈슨 장로와 버지니아

출신인 로빈슨 자매는 브리검 영 대학교에서 만나 1974년에 결혼했으며 같은 해 운송 관련 기업의 한국 총 책임자로 임명되어 1977년까지 한국에 머물렀다. 이들의 첫 번째 자녀는 이때 서울에서 출생했다.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지닌 만큼, 로빈슨 장로 부부는 이

부름과 봉사의 기회에 대해 큰 감사와 기대감을 보인다.

로빈슨 장로는 국제 운송 및 금융 분야에서 일했으며, 업무 발령으로 15년 이상을 한국, 일본, 중국, 유럽 등지에서 살았다. 로빈슨 자매는 모델 및 연기 분야에서 일했다. 슬하에는 세 자녀와 열두 명의 손자 손녀가 있다. ■

KM 영 버라이어티 쇼

“기특하고 감동적인 모습이었다.”
관람객들의 공통된 소감이다.

지난 5월 28일 토요일 저녁, 경기도 구리시 청소년 회관 공연장에서 동대문 스테이크 교문 와드 청소년들이 진행하는 ‘KM 영 버라이어티 쇼(이하 KM쇼)’가 열렸다. 올해 2회를 맞는 KM쇼는, 교문 와드 청소년들과 그들의 비회원 친구들이 직접 기획하고 준비했다.

이 공연은 “후기 성도의 표준을 지키며 즐겁고 훌륭하게 공연함으로써, 우리의 표준을 알린다.”라는 목적으로 2015년에 처음 시작되었다. 2015년의 주제인 ‘표준’에 이어 올해 KM쇼의 주제는 ‘선택’이었다. 고등학교 3학년 조관중 형제는 공연의 도입부에서, 다음과 같이 연설했다. “우리의 삶은 선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 우리의 양심과 신앙에 따라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극, 음악 밴드 공연, 댄스, 아카펠라 등으로 구성된, 말 그대로 ‘각양각색(variety)’의 공연이 펼쳐졌다. 특히, 교문 와드 청소년 및 비회원 친구 30여 명은 함께 공연의 주제와 가치관을 공유했다. 상호 향상 모임의 주제곡인 ‘Press Forward(앞으로 나아가)’를 노래하며, 이날의 공연을 마무리했다.

청소년들은 예비 선교사의 의무를 수행했다. 20여 명의 구도자를 포함하여, 저활동 및 활동 회원으로 구성된 120여

명의 관객이 이날의 공연을 감상했다.

청소년들은 4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각자의 시간을 쪼개어 이 공연을 준비해 왔다. 공연에 참여한 한 청남의 비회원 부모는 이렇게 소감을 나누었다. “저희 아들이 공연을 준비하면서, 학업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 스스로 시간을 관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개인 여가 활동 시간을 줄여 연습 시간을 마련하고 학업 시간에는 더욱 집중하는 모습을 보고, 교회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



이천 지부 30주년 홈커밍데이 행사 및 음악회

“5명으로 시작한 이천 지부가 이제 80여 명의 회원과 함께 30주년을 맞았습니다.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까닭은 지부 회원들의 사랑과 봉사 때문입니다.”라고 이천 지부 원복상 회장이 말씀했다. 지난 5월 28일 토요일 저녁, 이천 지부 30주년을 기념하는 홈커밍데이 행사가 열렸다. 이날 행사는 음악회와 말씀 순서로 구성되었다. 이천 지부 회원들은 청년 및 합창단의 노래, 바이올린 연주, 독창 등

잘 준비된 아름다운 음악으로 기쁜 날을 축하했다.

이천 지역에 첫 전도소가 생긴 것은 1986년, 이는 2년 후 이천 지부로 승격되었다. 이천 지부를 거쳐 간 여러 회원과 귀환 선교사들이 이 자리에 함께했다. 고향인 이천 지역에서 개종한 안양 스테이크 정동환 회장은 개종했던 경험을 회상하며, “맞춰지지 않은 퍼즐 조각처럼, 현재 살고 있는 인생이 어떤

그림인지 우리는 알기 힘듭니다. 하지만 이렇게 시간이 흘러 우리가 만들었던 작은 조각들을 맞춰 볼 때, 퍼즐 조각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임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라고 전했다.

이천 지부의 역사를 지켜 온 김근수 형제는, “갑작스레 활동 회원 수가 20여 명으로 줄었던 적이 있습니다. 회원들이 힘을 합하여 100일 동안 릴레이로 금식하며 간구했고, 곧 회원 수가 40여 명 이상으로

다시 회복되었습니다.”라며 이천 지부 회원들이 화합했던 일화를 소개했다. 모임을 마무리하며, 영동 스테이크 유장철 회장은, “훌륭한 성도들이 이곳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초를 닦아 주셨다.”는 말씀으로 감사의 뜻을 표하고, 앞으로도 지속해서 노력하고 봉사해 달라며 회원들을 독려했다. ■



이천 지부 합창단



이천 지부 청년 송창

한국 성도의 소리

백사장 위에 모인 작은 동그라미

강명옥 자매는 청주 스테이크 청년 회장으로 10년, 1보좌로서 5년 동안 봉사했으며, 올해 초 그 부름에서 해임되었다.



강명옥 자매
청주 스테이크
상당 와드

스 테이크 청년 회장으로 보낸 15년은 참으로 행복한 시간이었다. 물론, 부름이 쉬웠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나는 여러 계기를 통해 주님께에서 보내신 가장 고귀한 영들과 함께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청소년 대회에서 겪은 한 가지 경험을 나누고자 한다.

우리 스테이크의 청소년들은 청소년 대회의 활동들을 스스로 준비한다. 청소년 스스로 준비한다는 것이 이제는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이런 시도를 처음 하던 때에는 시행착오도 많이 있었다. 나는 청남 청년들이 스스로 대회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것을 믿고 지켜봐 주지 못했다. 부족한 점이 보이면 바로 개입하여 참견하기도 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때면 고쳐 주려 했다. 도와주려는 마음이긴 했지만, 그들에게 충분한 신뢰를 보이지 못했다.

그러던 2008년, 어느 섬마을 바닷가에서 열린 하계 청소년 대회 둘째 날이었다. 어슴푸레 땅거미가 지던

저녁 시간, 빗방울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했다. 우리는 야영을 하고 있었고 텐트 이외에는 아무 시설도 없었다. ‘분명히 일기 예보를 확인했는데 ...’ 청소년들이 준비한 무도회가 저녁 식사 이후 진행될 예정이었고, 무도회를 비롯하여 앞으로의 모든 활동들이 걱정되기 시작했다. 만일에 대비해 근처 초등학교를 사전에 빌려 놓긴 했지만, 20km나 떨어져 있어 이동하기가 난감했다. 나는 함께 의논할 성인 지도자들을 모으려 그들을 급하게 찾아다녔다.

분주히 돌아다니던 그때, 하얀 백사장 위에 모인 작은 무리를 발견하고 발걸음을 멈췄다. 우리 청소년들이었다. 무도회를 담당한 청소년들이 동그랗게 모여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었다.

내 마음에 고요함이 찾아왔다. 그들은 비 오는 날씨와 활동 진행에 관해 하나님께 상의드리고 있었으리라. 나의 마음이 따뜻해졌고 불안함과 걱정이

사라졌다. 그들을 멀리서 지켜보며, 그들처럼 나도 내리는 비를 그대로 맞고 있었다. 실로 아름답고 거룩한 모습이었다.

기도가 응답된 것일까 ... 기적처럼 비가 그쳤고 이윽고 예정대로 무도회가 진행되었다. 스스로 무릎을 꿇고 겸손히 기도하던 청소년들은 이제 마이크를 잡고 무도회를 진행했다. 조금이라도 더 잘하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 역력했다. 청남 청년들의 얼굴에 나타난 빛이 내게도 전해졌다. 그 아이들의 얼굴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셨다.’라는 벅찬 기쁨으로 물들어 있었다.

무도회가 끝나고 모두 잠든 새벽, 나는 한참 동안 잠이 오지 않았다. 텐트를 둘러보며, ‘이렇게 훌륭한 아이들과 함께 이곳에 있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속으로 수없이 되뇌었다.

나는 후기의 경륜의 시대에, 가장 고귀하고 훌륭한 영을 주님께서

보내주셨다는 것을 눈으로 목격했다.
우리 청남 청년과, 그들이 준비하는
청소년 대회는 나와 우리 스테이크의
자랑이 되었다. 나는 아직도 하얀 백사장
위에서 보았던 거룩한 기도의 원이

잊히지 않는다.
“너는 겸손하라. 그리하면 주 네
하나님이 손을 잡고 너를 인도할 것이요,
...”(교리와 성약 112:10)
나는 이 구절이 참되다는 것을 청남

청녀들을 통해 배웠다. 부름은 봉사와
희생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부름을 통해
나는 허다한 축복을 받고 주님께 빛을
졌다. 앞으로 축복의 빛을 갠 나가고
싶다. ■

새로 부름 받은 선교사: 자매 10명 / 장로 3명



강세리 자매
영동 스테이크
수지 와드
대전 선교부



강현빛 장로
광주 스테이크
첨단 와드
서울 남 선교부



김다정 자매
전주 스테이크
중앙 와드
서울 남 선교부



김수정 자매
서울 서 스테이크
청라 와드
부산 선교부



송진호 장로
대전 스테이크
둔산 와드
서울 선교부



양유진 자매
제주 지방부
제주 지부
서울 선교부



우상민 자매
수원 스테이크
곡반정 와드
홍콩 선교부



윤효주 자매
동대문 스테이크
이문 지부
뉴욕 뉴욕남
선교부



정혜연 자매
청주 스테이크
상당 와드
솔트레이크
템플스퀘어 선교부



조은일 자매
밴쿠버 스테이크
한인 지부
대전 선교부



최현용 자매
홍성 지방부
홍성 지부
서울 선교부



하늘가빈 장로
창원 스테이크
진해 와드
오스트레일리아
브리즈번 선교부



한상은 자매
아시엔다하이츠
스테이크
한인 지부
부산 선교부

역원 및 단위 조직 명칭 변경

서울 성전

성전 회장: 민혜기 형제(전임: 이용환 형제)

서울 남 선교부

서울 남 선교부 회장: 로저 윌리엄 터너 형제(전임: 모리스 형제)

대전 선교부

대전 선교부 회장: 존 레너드 매드슨 형제(전임: 신용인 형제)

동대문 스테이크

교문 와드 감독: 조창훈 형제(전임: 이주대 형제)

수원 스테이크

평택 와드 감독: 한상희 형제(전임: 이해택 형제)

한국 홍보 위원회

위원장: 김도균 형제(전임: 허병석 형제)

미디어 담당: 이원강 형제(전임: 박상기 형제)

지역사회 담당: 박진영 자매(전임: 허용환 형제)

서기: 윤진아 자매(전임: 최봉선 자매)